

韓牛는 우리의 重要한 資源

- 韓牛를 輕視하지 말자! -

회장 송 찬 원

한우는 아득한 옛날 중국대륙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다른 품종과 교배됨이없이 순수하게 우리민족과 더불어 그 명맥을 이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분야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듯이 축산분야도 못지않게 발전을 거듭하여 온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분야만은 축산분야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방과 6.25전란을 겪은뒤 심각한 한우의 부족상태로 역농에 필요한 소의 절대두수가 부족되어 농번기가 되면 소가 부족한 지역을 돕기 위해 다른도에서 소를 동원하여 밭갈이를 도와 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한우의 증식을 꾀하길 위해서 “가축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암소의 도살규제와 도축두수의 제한등 한우의 절대수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후 가축보호법을 폐지하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축산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고 이법의 주요골자는 가축의 개량을 중시한 “종축의 검사”, “가축의 인공수정” 그리고 개량의 기초가 되는 혈통의 등록제도등이 담겨진 새로운 법으로서 축산의 시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축산법의 주요 정신이 가축의 개량이었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역우의 부족 현상과 소득이 향상되면서 육류의 공급마저도 부족한 현상이 되풀이되다 보니 개량이라는 면보다 증식이라는 당면문제 해결에 더욱 정부의 시책의 비중이 컸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축산의 행사때마다 축사나 치사속에 어김없이 포함되는 “개량증식”이란 말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축의 개량”이란 용어는 “증식”이

란 용어에 붙어다니는 수식어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축산분야중에서도 양계나 양돈분야는 가장 빠르게 전업 내지는 기업화되면서 우수한 종축들이 민간종축업자들로 하여금 도입되어 확대생산 보급되므로써 그 수준은 놀랄정도로 향상되어 왔고 전문기술자의 고용흡수도 활발하여 졌으나 한우분야만은 아직도 농가의 부업적 사육이라는 점에서 가장 개량이나 경영기술면에서 뒤떨어진 분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축분야에서 소, 돼지, 닭 등 많은 품종들이 사육되고 있지만 우리민족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의 가축품종은 “한우”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축산의 대중이며 국가적으로는 귀중한 자원으로 이어져왔으며, 농민에게는 절실한 소득원으로서 가장 주체성을 가진 가축임에도 학자들이나 연구가들마저 이를 외면해버리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우리고유의 한우 자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개량해 내려는 의지는 약화되고 외국의 품종에만 신경을 쓰는 양상은 분명히 먼훗날까지도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 축산인들이 해방후 40여년 동안 그렇게도 부족한 한우를 자급기만을 마련해보자고 안간힘을 다해오던것이 소의 증식이 너무되어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가격때문에 시달리나 보니 모처럼의 귀한 소의 자급기반까지의 증식을 달성해놓고도 그 성과에 대한 공과는 고사하고 한우의 감축에만 은행정이 방향전환을 한 듯한 인상의 대책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가 늘었다고 소의 기반은 이제 다되었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위험할 뿐 아니라 100 만호가 넘는 농민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못하면 외면하는 결과가 될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한정된 경지면적과 생산성의 한계때문에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부터 실시한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그리고 그후 “복합영농” 또는 후계자육성사업등 각종 농촌지원 사업속에는 소의 입식으로 증식을 꾀하는 한편 농가의 일반 농업외의 축산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양돈이나 양계산업이 「양돈농가」 「양계농가」라고 칭하기에는 알맞지 않을 정도로 다시 말씀드려 여러 농가의 소득을 고루 높여줄 수 있는 대상에서 점차 전업 내지는 기업화로 변해 갈 것이며, 앞으로 농촌의 공업화니 농외소득 증대시책이 폭넓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우리 농촌 산촌지방에서는 한우만은 오래도록 소득원으로서 사육될 것이 분명할진대 그렇다면 영세한 산촌 농민의 소득을 보다 높여 주기 위해서라도 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한우로 개량해 나가는데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요시 다

를 시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벼품종에서 다수확을 성공한 예와같이 가축에 있어서도 “품종” 즉 “종자”의 중요성은 함께 중요시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품종인 한우는 누가 뭐라고 하던 아무리 농촌의 여건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 농민과 더불어 농가의 소득원으로 오래도록 존재할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소(役牛)로서의 역할에서 고기의 공급원인 육우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량이라는 수단을 강력한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우리민족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한우를 세계의 소들과 그 명맥을 육우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일소로서 부족하던 한우! 고기공급원으로서 부족하던 한우! 농민들이 그렇게도 소기르기를 희망하던 일이 어제였었던점을 생각할 때 한우의 개량사업이 비록 부업적 사육형태와 농민의 인식수준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후손에게 귀중한 자원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영광된 일에 80년대에 살고있는 축산인들은 모두가 한우개량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해 주실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 알 림 ***

희망찬 약동의 새봄입니다.

당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종축개량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본회 정회원(중신회원 제외)께서는 '86년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연 회 비 : 10,000원
2. 납부방법 : 송금하실 때에는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우체국대 체번호 서울 010033 - 31 - 0519173번으로 불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